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제대로 알고 즐기자

품격 있고 트렌디한 공연 등 국악 한마당



보성군에서 오는 19일부터 21일 까지 3일간 제21회 서편제보성소리 축제를 개최한다. 3일 동안 보성다향체육관과 관소리성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다채로운 소리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축제의 첫 날(19일)에는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판' 공연이 올라간다. 뮤지컬 '판'은 조선시대 이야기꾼인 전기수에 관한 스토리로 국악, 랩, 오페라, 난타 등을 접목하여 동서양을 아우르는 음악

한마당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 '판' 공연 시간은 15시와 19시30분이며, 티켓은 티켓링크에서 예매가능하고 현장구매도 가능하다.

둘째날(20일)에는 13시30분에는 다향체육관 야외무대에서 9인 남성 창작국악그룹 '재비'의 어쿠스틱 국악 공연이 펼쳐진다. 16시에 같은 자리에서 뉴욕국악협회 초청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19시에는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서울

시 행사(토, 일)는 축제장에서 '연날리기와 비석치기', '관소리한 대목 배우기', '악기장과 함께하는 대금체험', '전원염색 한복 체험' 등 관객과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한, 보성·별교 곳곳에서 '소리 버스킹'이 예정돼 있어 풍성한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축제 안내는 보성군 축제포털(<http://festival.boseong.go.kr/sori>)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국 관소리 고수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17일까지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061)852-2621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세계 최고 수준 백계산 동백림 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조립사업 규모 확대 추진



광양시가 백계산 동백림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1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시의원, 전문가,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계산 동백림 조성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시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계산 동백 특화림 단지 조성 관련 기본계획용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세부연구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된다.

그동안 시는 백계산 일원에 국내 최대 동백군락지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1,000ha를 대상으로 대상지 현황과 조성여건 분석, 동백나무 식생 및 동백림 조성·관리방안 등을 구상해 왔다.

또 동백을 활용한 자원화 방안과 경제성 분석, 관리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을 바탕

으로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지역특화 조립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는 등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희원 산림소득과장은 "천년의 역사가 살아 있는 백계산에 동백 특화림 조성이 완료되면 도산국사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자연휴양림과 식물생태숲, 자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한 산림생태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특화모델 개발과 관련 6차산업을 육성해 지역브랜딩화를 도모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순천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한다

단천 마그네사이트 자원협력 순천만 습지·두루미 연계 생태교류

순천시는 9·19 평양 공동선언을 28만 시민과 함께 적극 지지하면서 새로운 남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부서간 토론회,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선도 도시를 향해 각계 각층의 지혜를 모아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마그네사이트 단지 조성을

위하여 북한 단천 지역 매장량 60억톤(2,600조원, 세계2위)의 마그네사이트와 결합한 경제협력 사업과 평남 순천시와의 순천만국가정원 습지·두루미를 활용한 순천형 남북 생태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순천시민 평화통일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 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순천형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 추진에 힘을 쏟는다.

서희 순천시장은 "일방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남북 상호 변화된 환경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남북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제17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최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광양을 서천체육공원 일원

광양시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광양을 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제17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개최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빛과 꽃, 맛의 어울림, 숯불구이 사랑'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또 축제 기간에 맞춰 서천변에 백일홍과 코스모스가 만개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첫째 날인 10월 5일에는 광양시 농악한마당과 광양시립합창단, 샌드 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7시 개막식이 개최될 예정이

다. 개막식은 인기 가수 축하공연과 폭죽놀이 등 축하쇼가 펼쳐져 행사의 흥을 높이고 가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둘째 날에는 지역예술인 축하공연, 광양민가요제가 진행되며, 셋째 날에는 코스모스가야제, 재활용 나눔 장터, 광양박물관, 청소년 재능기부 페스티벌, 포에버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8일에는 지역 문화예술동호인 공연과 드림팝스 앙상블, 광양시립국악단 공연, EDM 페스티벌이 개최되며,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찜소 페이스페인팅, 숯비누, 숯부자 만들기 등 다양한 숯체험 행사와 관람객 키즈아트, 청사초롱 유등띄우기, 목공예, 염색체험, 도자기체험, 가훈 써주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광양역사문화관에서는 버스킹 공연, 광양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는 자생란 연합전 등 광양을 곳곳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문화예술행사가 마련됐다.

신명식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광양의 문화를 즐기고 맛과 멋, 그리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철도마을신문 '칙칙폭폭' 제4호 발간

조곡동 마을 이야기 등 8면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순천철도마을신문제작단에서는 철도마을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순천철도마을신문 '칙칙폭폭' 제4호

를 발간해 주민들과 인근 상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철도마을신문에는 '새로운 역사

를 꿈꾸는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철도마을축제', '비리 만나보는 철도관사마을 경관사업' 등 마을 이야기와 주민들의 미담사례 등 8면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신문 제작을 위해 마을미디어 교육생 및 마을해설사 등 12명을 주민기자단으로 구성했다.

제작에 앞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주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사진편집 및 동영상 제작 등 주민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주민 스스로 발로 뛰며 취재 및 기사 작성, 사진 촬영, 편집 등을 통해 신문 지면별로 차임새 있게 구성했다.

김광우 조곡동장은 "앞으로도 마을신문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소소한 우리 이웃이야기, 지역현안문제,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주민들의 삶과 동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